

돈화시빙설문화관광체육활동 가동

오락 · 체험 · 미식 · 경기 · 견학 등 다채로운 겨울 행사 출출이



일전 돈화시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돈화시문화리치오텔레비죤방송 및 관광국(체육국)에서 주관한 2025-2026 돈화시빙설문화관광체육활동 및 1회 돈화시빙설운동회가 북산빙설락원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2025-2026 돈화시빙설문화관광체육활동은 돈화시 빙설 자원에 의거하여 '빙설+' 융합 발전 방향을 확정하고 빙설오락, 빙설체험, 빙설미식, 빙설경기, 빙설경학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하며 전역이 활동된 빙설 소비의 새로운 정경을 조성했다.

그중 륙정산문화관광구역의 몰입식 빙설락원은 놀이, 연예, 음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관광객들에게 원스톱 놀이 체험을 제공하고로 백산원시생태경구에서는 '림해설원 통과'를 핵심 IP로 심층 체험식 빙설관광 코스를 출범해 관광객들이 림해설원의 장대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흥선항 종성촌에서는 '즐겁게 설쇠기' 주제를 둘러싸고 무형문화유산 전시공연, 빙설 장소를 망라하게 되는데 경기 설

상유예 등 민속활동을 개최하고 발해호공원에서는 '빙설+문화관광+친자+운동' 융합 모식에 초점을 맞춰 무동력 체험, 오프로드 오토바이 자가운전, 격정 얼음미끄럼틀 등 8대 특색 기능 구역을 구축하여 부동한 군체의 놀이 수요를 만족시켰다. 북한전민건강센터 스케트장에서는 전문 감독을 초청하여 현장에서 기능 양성 수업과 청소년 취미반을 개설해 무료 공익 지도를 제공하는 등 빙설운동의 보급을 주동했다. 돈화시 북산 불꽃 골목 설맞이 장터에서는 '대단원, 경사, 혜택, 편민'의 4대 특색을 둘러싸고 설맞이 전시판매, 지역 음식, 친자오락, 민속 체험이 일체화된 새봄 주제 활동을 구축했다.



이 밖에 돈화시 문화관광부문은 또 따뜻하게 빙설카니발, 한강향 제 4회 동북거위미식대회 및 항준빙설문화관광활동, 관지진 '길상문화, 설맞관지' 2026 새해 장터 등 계절 활동을 개최하여 돈화 겨울철 문화관광 소비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시켰다.

이날 빙설운동회 가동식에서 돈화시문화관 배우들이 무용〈대동북은 나의 고향〉 노래매들리, 무용〈돈화와의 약속〉 등 특색 프로그램을 열연하며 돈화시의 빙설문화와 민속풍정이 융합된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료해에 따르면 제 1회 돈화시빙설 운동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지속된다. 빙설운동회는 전 시 여러 빙설 장소를 망라하게 되는데 경기 설

치 면에서 설합전, 중소학생 스키경기, 제 9회 동계수영 초청경기, 림해설원을 가로지르는 빙상낚시경기, 눈밭 오토바이 도전경기, 눈밭축구경기, 청소년 스피드스케이팅 초청경기, 얼음챙기 도전경기 등 10여 가지 특색 경기가 펼쳐지게 된다.

스키애호가들은 이번 행사의 주최장인 돈화 북산빙설락원에서 총길이 600미터, 너비 100미터의 스키장을 가로지르며 눈 덮인 경관에 아름다운 화려함을 남겼다. 북산빙설락원은 방문객 편의를 위한 정밀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관광객들의 체험 만족도를 높였다.

컨테이너 설구대청(雪具大厅) 내에는 현대식 정보 안내소가 설치되어 티켓 구매, 상담, 길안내, 장비 대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능 지불 단말기와 인공 매표장구가 동시에 운행되고 현금, 이동지불 등 여러 가지 결제 방식을 지원하여 부동한 년령대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キー 안전수칙과 스노보드 입문 강좌를 방송하여 관광객들이 틈틈이 실용적인 스キー 상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임안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전용 휴식 공간과 따뜻한 대기실을 마련,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동시에 빙설운동의 교정 진입을 주동하고 청소년 군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북산빙설락원은 또 2025-2026 빙설 시즌 중소학생 스キー 혜민 조치를 내놓았다. 전 시 만 6세~15세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스노보드 3시간 무료체험봉사(입장권 및 스노우 슈즈, 스노보드, 눈싸움 등 장비 포함), 전 시 여러 종교학교를 대상으로 스끼장 하루 리용 봉사(12월 30일까지, 예약제) 등을 제공한다.

/ 돈화시당위 선전부

'중국향상 · 빙설미소곡선' 홍보 가동식 롱정서

23일,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 네트워크전파국에서 주도하고 길림, 북경 등 6개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 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에서 주최한 '2025년 중국향상 · 빙설미소곡선(中国向上 · 冰雪微笑曲线)' 네트워크 주제 홍보 가동식이 통장에서 열렸다.

가동식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가무공연과 함께 막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눈꽃마을 찾기', '고향의 눈' 쇼트클립대회, '길

림 1호에서 바라본 빙설' 시리즈 활동, 'AI 설경' 창작대회 등 4대 특색 활동도 발표되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함께 빙설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초대했다. 이어 중앙 언론사 기자 대표와 인플루언서 대표들이 차례로 빙설 이야기를 전파하고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초심과 기대를 공유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 윤조휘는 축사에서 "연변은 5개월간 지속

되는 초장기 적설기와 우수한 품질의 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빙설 시즌을 맞아 '장백의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를 주제로 100여개의 특색 있는 빙설활동, 9대 체험 상품 및 9대 주제 코스, '관광객을 아끼는 연변' 8대 행동과 22개 강력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연변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가동식이 끝난 후 주최측 관련 책임자와 중앙 및 지방 매체 기자, 전국

및 성내 문화관광 분야 인플루언서, 플랫폼 파워블로거, 서부계획대학생 대표 등 100여명이 안도현 장백산 설령관광지와 화룡시 선봉 로리코호 관광지를 방문 취재했다. 이들은 림해설원의 풍경을 깊이있게 체험하며 빙설의 절경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향후 이들은 연변 빙설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시리즈 뉴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 연변넷

길림성, 네가지 주제별 새 빙설관광 코스 공개

길림성은 장춘을 중심으로 한 네가지 빙설 주제의 새로운 관광 코스 발표와 함께 1억원 상당의 빙설 소비 쿠폰과 다양한 교통편 지원 조치를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네개의 관광 코스는 길림성 동부, 중부, 서부의 핵심 문화관광 자원을 아우르는데 각 코스는 뚜렷한 주제와 독특한 특색을 강조하고 있다.

장춘 - 길림 - 연변 - 장백산 북쪽 4박 5일 여행은 정월당, 길림 무송, 조선족 민속마을, 장백산 천지 등 주요 명소를 연결하여 관광객들은 스キー, 무송표류, 화산온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장춘 - 통화 - 백성 3박 4일 여행은 '빙호 물고기(冰湖腾鱼)'와 전어성연(全鱼盛宴)이 펼쳐지게 된다.

길림성은 32개 빙설관광 전용 셔틀

의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다.

장춘 - 러원 - 매하구 - 통화 3박 4일 여행은 민속과 문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북촌 설향의 밤문화와 고구려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다.

장준 - 송원 - 백성 2박 3일 여행은 차간호 얼음낚시 경관과 러금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빙호 물고기(冰湖腾鱼)'와 전어성연(全鱼盛宴)이 펼쳐지게 된다.

길림성은 32개 빙설관광 전용 셔틀 브스로선과 388개의 맞춤형 여행 코스를 통해 고속도로, 항공, 철도가 주요 스끼장 및 관광지와 원활히 연결되도록 추진하게 된다. 또한 중국 세금 환불 서비스와 종사자 직무 능력 훈련, 민원 신속 처리 기제를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 길림일보



일전 찬공기의 영향으로 장춘시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사진은 장춘 남호공원에 펼쳐진 설경이다.

[영상] G331 '작은 도시 이야기' ⑫

3국이 맞닿은 해돋이 1번지 – 훈춘



대 개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막대한 개방 우세, 협력 우세, 발전 우세를 지니고 있다.

훈춘시는 동북아시아 국가공원과 방천 4A급 국가풍경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생 동북아시아 표범 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매년 또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이곳에서 서식 번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선족 통조, 접시종과 만족 종이공예 등 무형문화유산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길림일보

天津大郑剪纸

爱国 敬业 诚信 友善
自由 平等 公正 文明 和谐

中华有福

助人是福

图说
我们的
价值观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